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미 무역 적자 감소... 수입 크게 줄었다
- Trading Economics: 6월 미 도매재고 전월 대비 0.5% 감소
- Bloomberg: 필라 연방은행 총재, “연준, 현재 금리 유지할수 있다”
- WSJ: 원유가 상승, 운전자와 연준에 부담 준다

[미국 금융]

- Bloomberg: 무디스의 신용 하향 등급과 리스트 우려로 미 은행 주가 하락

[반도체]

- Finance Yahoo: 칩 제조 업체들 확장안 불구, 인력 부족

[중국 경제]

- WSJ: 중국 수출, 2020년 이후 가장 가파르게 감소
- Bloomberg: 중국 디플레이션 악화↑... 기업들의 가격 인하 탕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CNN Business: 소비자 지출에 대한 기업들의 목소리는?
- WSJ: SoftBank “18개월 만에 첫 투자 수익, 새로운 AI 투자 추진 계획”
- NYT: GM “전기차에 백업 전원 기능 추가한다”
- CNN Business: PayPal “스테이블코인 출시... 암호화폐 미래에 베팅하다”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Bloomberg: US Trade Deficit Narrows as Imports Decline to Lowest Since 2021

미 무역 적자 감소... 수입 크게 줄었다

- 미 수입 규모가 지난 2021년 이래 가장 낮게 줄어들어 6월 미 무역적자가 작아졌다. 이는 다소 둔화된 소비 수요로 보인다.
- 연방 상무부에 따르면 상품과 서비스 적자가 28억불 줄어들어 지난 3개월 간 가장 낮은 6백55억불을 기록했다.
- 전체 수입 가치는 1% 줄어들어 지난 2021년 11월 이래 가장 낮았는데 자본재와 산업 공급재 전체 가격 규모가 감소했다.
- 미 소비자들의 외국산 제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는데 작년 초 최고치에서 그 이후 크게 줄었다. 소비자 지출도 상품 구매에서 서비스로 방향을 들고 있다.

Bloomberg 기사

Trading Economics: U.S. wholesale inventories for June fell 0.5% from the prior month.

6월 미 도매재고 전월 대비 0.5% 감소

- 올해 6월 미국의 도매 재고는 전월 대비 0.5% 감소했으며, 이는 예비치 0.3% 감소와 전월의 0.4% 감소와 비교해 상향 조정된 수치다.
- 이는 4개월 연속해 도매 재고가 감소했는데 주로 석유(-3.1%), 화학제품(-2.2%), 종이(-2.1%) 등 비내구재(5월 -1.2% 대 -1.6%)에 의해 주도되었다.
- 내구재 재고도 하락했는데(5월 -0.1% 대 0.3%). 기계(1.3%)와 자동차(1.1%)의 재고 증가는 금속(-3.5%)의 급격한 감소에 의해 상쇄됐다.

Trading Economics 기사

Bloomberg: Harker Says Fed May Now Be at Point Where It Can Hold Steady

필라 연방은행 총재, “연준, 현재 금리 유지할수 있다”

- Patrick Harker 필라 연방은행 총재는 “연준의 경제에 특별한 상황이 없다면 금리 인상을 중단할 수 있지만, 금리는 당분간 현재처럼 높은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그는 오늘 필라델피아 비즈니스 저널의 행사에서 “지금부터 9월 중순까지 충격적인 새로운 데이터가 없다면 인내심을 갖고 금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우리가 취한 통화 조치가 효과를 발휘 할 수 있는 시점에 도달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 또한 다른 행사에서 Thomas Barkin 리치몬드 연방은행 총재는 “9월 연준의 차기 회의에서 또 한번의 금리 인상이 적절할지 말하기는 아직 너무 이르다”고 밝혔다.

Bloomberg 기사

WSJ: Rising Oil Prices Are Bad News for Drivers—and the Fed

원유가 상승, 운전자와 연준에 부담 준다

- 작년에 미 인플레이가 40년만에 최고치를 보였는데 작년에 유가 급등 현상이 발생했다. 이러한 추세는 올해에 반전을 이루고 있다.
- 그런데 벤치마크 원유 가격이 지난 6주동안에 21% 상승, 미 근로자의 출퇴근 비용, 화물 운송 비용, 모든 제품의 생산 비용을 부추겼다.
- 연준이 선호하는 인플레이 지표에서 변동성이 큰 에너지 비용과 식품 비용이 제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은 유가 상승이 경제의 모든 부분에서 간접적으로 가격을 인상시킬 것이라고 우려한다.
- 이번 유가 상승은 사우디와 러시아가 시장 공급을 줄이기 위해 감산을 결정한 후 이루어졌다. 미국 경제에 대한 투자자들의 낙관론도 가격을 부추

겼다.

- 지난 3개월간 디젤 도매가는 31%, 제트 연료는 33%, 휘발유는 18% 올랐다.

WSJ 기사

[미국 금융]

Bloomberg: US Bank Shares Drop After Moody's Cuts Ratings, Warns on Risks

무디스의 신용 하향 등급과 리스트 우려로 미 은행 주가 하락

- Moody's Investors Service가 중소형 대출업체 10군데의 신용등급을 낮추고 U.S. Bancorp, Bank of New York Mellon Corp., State Street Corp., and Trust Financial Corp 등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고 밝힌 후 미 은행 주가가 하락했다.
- 무디스는 자금 조달 비용 증가, 잠재적인 규제 자본 리스트, 상업용 부동산 관련 리스크 상승 등 3가지가 우려 요인 이라고 밝혔다.
- 무디스는 "이 세 가지 요인이 미국 은행의 신용 프로필을 낮췄지만 모든 은행이 똑같지는 않다"고 밝혔다.

Bloomberg 기사

[반도체]

Finance Yahoo: Chip makers have plans for new US factories. But not enough workers to run them.

칩 제조 업체들 확장안 불구, 인력 부족

- 당초 칩 제조업체들은 1년 전 획기적인 반도체 지원법에 힘입어 2천3백10억 불의 신규 투자를 통해 미국 반도체 산업을 다시 일으키고 있다.
- 그러나 이 법안 제정 1년이 지난 지금 공장이 건립/운영될 경우 숙련된 충분한 근로자 부족이 우려되고 있다.
- 노동력 부족은 이미 피닉스에 진행중이 관련 프로젝트 건설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인력 부족 우려는 오하이오 중부의 인텔(INTC), 텍사스에서 유타에 이르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순조롭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 이같은 인력부족은 반도체 제조업을 다시 일으키려는 미국의 노력에 역풍이 될 수 있으며 바이든의 재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Finance Yahoo 기사

[중국 경제]

WSJ: Chinese Exports Fall at Steepest Pace Since February 2020

중국 수출, 2020년 이후 가장 가파르게 감소

- 7월 중국 글로벌 수출이 감소했다. 이는 중국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서방의 수요 고갈이 중국 성장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것이다.
- 올해 초 잠시 반등했던 중국 수출은 작년 10월부터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다. 서구 선진국 소비자들이 가구나 전자 기기 구매에서 외식 등의 서비스로 소비를 전환하기 시작했기 때문.
- 중국과 미국 간의 긴장이 악화되면서 일부 서구 제조업체들은 중국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있다. 이는 양측 간의 무역 관계를 악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 아시아의 다른 수출 강국들도 글로벌 수요 감소로 어려움을 겪었다. 한국의 경우 전년 대비 16.5% 감소했다. 구매관리자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아시아 7개국 중 5개국의 제조업 부문이 위축되었다.

WSJ 기사

Bloomberg: China Deflation Threat Grows as Companies Cut Prices to Survive

중국 디플레이션 악화↑... 기업들의 가격 인하 탕

- 중국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가격을 인하 하고 있다. 이는 경제가 악화되면서 중국 기업을 강타하고 있는 디플레이션 압력을 보여준다.
- 경제 전반의 물가를 측정하는 국내총생산 디플레이터(deflator)에 따르면 중국은 이미 물가가 하락하는 이른바 디플레이션에 빠져 있다.
- 중국에서 수제 가죽 신발을 판매하는 Nie Xingquan은 팬데믹 제한 조치가 끝났을 때 판매 호황을 기대했다. 하지만 수요 부진으로 전년 대비 가격을 3% 인하했다. 그는 2월부터 사업이 위축 되었다고 덧붙였다.
- 블룸버그 주식 전략가인 Marvin Chen은 디플레이션이 중국 기업 수익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중대한 위험이라고 말했다. 생산자 물가 하락은 이미 산업 및 업스트림 부문 수익에 타격을 주고 있으며, 곧 다운스트림 부문도 압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loomberg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CNN Business: Here's what CEOs are saying about consumer spending

소비자 지출에 대한 기업들의 목소리는?

- 미 소비 회복력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 이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다. 미 GDP의 3분의 2나 차지하는 소비자 지출은 2분기에 1.6%에 그쳐서 1분기의 4.2%에 크게 감소했다.
- 항공업계가 경우 해외 여행을 선호하고 있어 태평양 경유의 경우 여행객이 두배 증가, 대서양 횡단 여행도 증가했다.
- 외식이나 식당업의 경우 스타벅스와 치폴레의 경우 2분기에 매출이 줄어 들었지만 소비자의 지출이 경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일부 연쇄점 프랜차이즈의 경우 높은 가격으로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이 1% 감소한 경우도 있다.
- 의류와 뷰티의 경우 리바이 스트라우스는 매출이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연 소득이 10만불 이상의 고객 수요는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모든 소비자가 그렇지 않는 것. 높은 인플레이와 미 경제 둔화로 가격이 민감한 소비자들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저가 선호 경향을 활용해 매출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 화장품 브랜드인 e.l.f Cosmetics는 최근에 매출이 증가했고 올해 순매출 전망도 상향 조정했다. 회사측은 “소비자 경제 환경을 주시하고 있지만, 현재 매출이 좋은 상태”라며 가격 인상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CNN Business 기사

WSJ: SoftBank Plans Fresh AI Bets After First Investment Gains in 18 Months

SoftBank “18개월 만에 첫 투자 수익, 새로운 AI 투자 추진 계획”

- 소프트뱅크는 1년 반 만에 처음으로 투자 수익을 올렸다. 또한 새로운 인공지능 분야 투자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 회사는 2분기 동안 주력 사업인 비전 펀드 부문에서 10억 불의 투자 수익을 올렸다. 이 부서가 수익을 낸 것은 처음 있는 일. 이를 계기로 새로운 투자처를 찾게 되었다고 최고재무책임자인 Yoshimitsu Goto가 말했다.
- 6월 30일에 마감된 2 분기를 보면, 소프트뱅크는 약 33억불의 손실실적을 기록했다. 엔화 약세로 회사의 달러 표시 부채가 증가했고, 반도체 산업이 둔화되면서 칩 설계업체 ARM 매출도 감소했기 때문이다.
- 이 회사는 금리 인상과 글로벌 기술 매각으로 보유 자산이 큰 타격을 입은 후 신규 투자에 신중을 가하고 있다.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초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의 지분을 매각한 바 있다.

WSJ 기사

NYT: G.M. Will Add Backup Power Function to Its Electric Vehicles

GM “전기차에 백업 전원 기능 추가한다”

- GM은 오늘 화요일 모든 전기차와 트럭에 백업 전원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전 시 비상 전력 공급원 기능을 한다.
- Vehicle-to-home로 불리는 이 기술은 양방향 충전 기술을 탑재해 비상시 가정에서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해준다. 이를 통해 전기차에 실용성을 부여한 것.
- 이 기술은 올해 Silverado픽업트럭의 전기차 버전과 GM이 이번주 수요일에 공개할 전기 Cadillac Escalade 차량에 적용된다. 또한 2026년까지 모든 전기차에 이 기술이 적용될 예정이다.
- 기상이변으로 정전이 더 빈번하고 길어지면서 정전 시에도 작동시킬 수 있는 전기차가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 미국 에너지 정보국에 따르면 정전 평균 지속 시간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두 배로 증가했다.

NYT 기사

CNN Business: PayPal bets on crypto's future with US-dollar-backed stablecoin

PayPal “스테이블코인 출시... 암호화폐 미래에 베팅하다”

- 페이팔이 소비자 결제를 위해 첫 번째 스테이블코인을 출시했다. 달러 기반 디지털 토큰의 잠재력을 활용한 것.
- 스테이블코인인 PayPal USD는 미국 달러 기반이며, 가상 공간 내에서 결제 시 문제점을 줄여준다. 국경을 넘어 더 빠르고 저렴하게 송금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 페이팔은 미래에 디지털 화폐가 일반적인 결제 방식이 되고, 신용카드 처리 수수료를 피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를 할 것이라고 생각해 암호화폐 미래에 베팅한 것이다.
- 암호화폐 보유자는 은행에서 부과하는 송금 수수료 없이 국경을 넘어 즉시 송금 가능하다.

CNN Business 기사

[보고서]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금융시장 출렁이자 '안전자산' 금 인기↑...올해 가격 8% 올라

금화 판매도 폭증..."전망 밝지 않고 채권이 낫다" 지적도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금리 인상, 은행 부도 등 1년 넘게 금융시장이 출렁이자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금의 인기가 올라가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금의 가격은 올해 약 8% 올라 현재 트로이온스당 1천970달러(약 258만원)에 달한다.

이는 2020년에 찍었던 종전 최고치 트로이온스당 2천69.40달러(약 270만원)에 근접한 것이라고 이 신문은 설명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